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 부담 커졌다”

### 광주·전남 기업 10곳 중 9곳 답해... ‘50인 이상’ 기업 100%

### ‘안전교육’·‘시설보강’ 등으로 대응... ‘사업 종료’ 검토 6.7%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상의가 지난 달 18일부터 2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역 기업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역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경영상 부담을 느끼

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총 91.7%로, ‘매우 부담’이 50.0%에 달했다. 또 ‘약간 부담’은 41.7%였으며, ‘부담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8.3%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인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들은 응답기업 전체(100%)가 법 시행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오는 2024년부터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기업들 역시 87.6%가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 ‘경영자 부담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넓은 형 무범위로 인한 대응 어려움’(55.0%), ‘과도한 형벌 수준으로 생산활동 위축’(45.0%), ‘인력채용·안전관리 등 비용부담 증가’(40.8%)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법 시행에 대해 기업들은 주로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95.8%·복수응답)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50.8%), ‘안전 컨설팅 실시’(25.8%),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13.3%)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 축소·종료 검토’(6.7%)와 ‘고용 감축’(4.2%)을 고려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또는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과제로 지역 기업들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60.0%·복수응답)과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60.0%)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면책규정 마련 등 규정 보완책 마련’(55.0%),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31.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들은 ‘면책규정 등 규정 보완책 마련’(62.5%)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62.5%)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50인 미만 기업들은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62.5%)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들은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69.2%)을, 건설·유통업 등 비제조업체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69.2%)을 꼽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경기 부진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형 매뉴얼 제공과 자금지원 등 기업들이 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와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취업자 늘었는데...광주 20대 취업자 줄었다

지난달 전국 20대 취업자 증가폭 역대 최대  
광주는 7000명 줄어 17개 시·도 최다 감소  
30대 광주 1만명·전남 9000명 ↓ ‘고용 충격’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달 광주에서 가장 많이 취업자가 줄어든 건 30대(-1만명)였다. 20대(-7000명)가 뒤를 이었고, 40대에서도 취업자가 1000명 빠졌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만4000명 늘고, 50대(8000명 ↑), 15-19세(2000명 ↑)도 증가했다.

전남에서는 30대(-9000명)와 40대(-3000명) 취업자가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무려 3만9000명 늘어 10년 만의 전남 취업자 최대 증가 폭을 이끌었다. 이외 20대(9000명 ↑), 50대(6000명 ↑), 10대(2000명 ↑) 취업자가 증가했다.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지난달 광주 제조업 취업자는 10만4000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18개월째 지속된 취업자 감소를 마쳤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 취업자는 전년보다 1만3000명 급감하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남지역에서는 건설업 취업자가 지난달 1만4000명 줄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기·운수·통신·금융 취업자도 3000명 줄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2만9000명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2만3000명 ↑) 취업자는 크게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전남 1월 취업자가 4만9000명 늘어 광주는 8개월 만에, 전남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광주 20대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7000명 줄면서 10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장 감소세로 나타났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광주 73만 명·전남 96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5000명, 4만4000명 증가했다.

광주 취업자는 지난해 5월(7000명 ↑)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전남은 무려 4만4000명 늘면서 지난 2012년 1월(4만6000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광주 57.0%·전남 6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4%포인트, 2.9%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평균 고용률은 59.6%로, 전년보다

2.2%포인트 늘었다. 전남은 제주(68.1%)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률이 높았다. 광주는 강원(55.0%), 부산(55.1%), 울산(57.0%)에 이어 밑에서 세 번째를 차지했다.

지난 1월 고용지표는 지난해 1월 취업자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의 영향을 받아 고용 회복세를 반영했다.

광주 취업자도 지난달 5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12월 2만3000명 줄어든 것과 대조를 보였지만 들여다보면 20대 고용난이 심화했다.

전국 20대 취업자는 27만3000명 늘어 통계를 낸 1998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광주 20대 취업자 감소는 10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달 광주 20대 취업자는 전년보다 7000명 줄었는데 이는 전국 최대 감소 폭이었다.

## 광주·전남 전문건설업계 실적 코로나 이전 회복

2021년도 기성실적총액  
건설경기가 장기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성장에 어려움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광주 1387개 전문건설업체 중 1274개사가 신고한 2021년도 기성실적총액은 2조7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해 코로나19 촉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공사는 11.7%가 상승한 4428억원이며, 하도급 공사는 0.9% 상승한 2조 3448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실적 1위는 삼지토건(1331억원)으로, 2위는 ㈜지형건설(990억원), 3위 대산산업(1177억원), 3위 대야산업(812억원) 순이었다.

광주시회는 협회와 회원사가 합심해 업력 확대와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내 발주기관이 위기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남도회는 협회 임·직원들이 지역 전문건설업체 육성·보호를 위해 지자체장 등 전남지역 내 주요 발주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발주를 적극 권유해 발주실적을 끌어올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1274개사 2조7870억...전년대비 2.5% 상승  
전남 3558곳 4조2719억원...전년대비 9.3% 증가

발주(773억원) 순이었다.

또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전남 3558개 전문건설업체가 신고한 지난해 기성실적총액은 4조2719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 이후 2번째로 4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밖에 100억원 이상 실적을 달성한 업체도 전년 54개사 1조3123억원에서 59개사 1조4985억으로 증가했다.

도양기업(1233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이어 2위 정흥건설산업(1177억원), 3위 대야산업(812억원) 순이었다.

광주시회는 협회와 회원사가 합심해 업력 확대와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내 발주기관이 위기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남도회는 협회 임·직원들이 지역 전문건설업체 육성·보호를 위해 지자체장 등 전남지역 내 주요 발주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발주를 적극 권유해 발주실적을 끌어올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원충국 중기융합 광주·전남연합회장 취임

원충국(57·사진) 중기융합 광주·전남연합회 신임 회장(삼원에스티에스㈜대표이사)이 17일 취임한다.

중기융합 광주·전남연합회는 이날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벤션에서 ‘제30차 정기총회 및 제14·15대 회장 이·취임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융합 광주·전남연합회는 지난 1993년 창립한 제조 중심 중소기업 경제단체이다. 1990년 출범한 무진융합회가 전신이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500여 회원사의 20개 단위융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업종 간 학습 조직, 공동사업, 기술융합 활동에 역점을 두고 광주·전남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원 신임 회장은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명품융합회에서 5년 5개월 동안 활동했다.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2년 삼원종합상사를 창업했다.

지난 2014년 삼원에스티에스㈜대표이사로서 취임한 뒤 2018년 명품융합회 사무국장, 2020년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조직상임위원장, 2021년 명품융합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원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소기업계에서 다른 업종 간 교류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융합교류회 참여와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며 “다른 업종의 경영자들이 지식,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고 융합해 각 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코스피·코스닥 반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코스피가 16일 큰 폭으로 반등했다.

최근 나흘 연속 하락하던 코스닥지수도 4% 넘게 뛰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3.14포인트(1.99%) 오른 2729.68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나흘 만에 강세로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2552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2080억원, 외국인은 430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에서 400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8.23포인트(4.55%) 오른 878.15에 마감했다.

일간 상승률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2020년 6월16일(6.09%) 이후 가장 높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2원 내린 1197.6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29.68 (+53.14)
↑ 코스닥	878.15 (+38.23)
↓ 금리(국고채 3년)	2.325 (-0.020)
↓ 환율(USD)	1197.60 (-2.20)



올 봄 화사하게 입어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4층 여성류 매장에서 봄에 인기 좋은 재킷·투피스를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실내에서 활동하기 편한 의류가 유행했지만 올 봄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밝고 화사한 색상을 다시 찾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 제공>

## 중기중앙회, 대출 만기 추가 연장 건의

중기중앙회는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정부의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줄고 중소기업 대출 금액은 급증하는 등 고용 위축과 경영 여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된다면 대부분 업종에서 DSR(원리금 상환 비율) 상승에 따라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계기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대출만기 추가 연장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취약차주 대상 이자채무 면제,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의 금융정책 마련도 건의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삼성전자, 폴더블폰 베트남 생산설비 일부 국내 이전

삼성전자가 베트남 협력사에 있던 스마트폰 생산라인 일부를 경북 구미로 이전했다.

16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8~9월 베트남 타이우엔성 소재 협력사에서 쓰던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 생산라인 2대를 구미 지역 협력사로 옮겼다.

회사 측은 “지난해 폴더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요가 커졌다”며 “스마트폰 국내 물량 양산을 담당하는 구미공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사 생산라인이 노후해 베트남 것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협력사가 조업에 어려움을 겪은 여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사업장은 삼성전자의 국내 유일 휴대폰 생

산기지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 등 국내 물량 생산을 전담한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이번 조치가 본격적인 리소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전면 가동하기 위해 부품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했다”며 “신제품이 나오면 장비는 교체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 경제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현재의 생산 구조”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